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똥족

Dòngzú

侗族

편자 권약평
역자 김상녀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尚女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侗族：朝鲜文 / 阙跃平编；金尚女译.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63-5

I. ①侗… II. ①阙… ②金… III. ①侗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7.2-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6013号

侗族

DONG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63-5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가나다 순)

곽우과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회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족)

왕해연(창족)

심고전문가(가나다 순)

김여빈(회족)

송 전(몽골족)

수 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타이족, 리족, 리수족, 외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어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짱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툄판 포도곶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똥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산을 등지고 물을 끼고 사는 유구한 민족——똥족

똥족은 어디서 왔는가? /9

나무층집에 관한 전설 /15

제2장 똥족의 생계방식

개구리와 제비가 벼종자를 구해오다 /17

뼈꼭새와 금빛참새에 관한 이야기 /19

파종절에 관한 전설 /21

십팔삼의 래력 /23

제3장 똥족의 건축예술

고루를 지은 전설 /25

고루라는 명칭의 래력 /29

풍우교에 관한 전설 /31

제4장 똥족의 풍속습관

“싸”에 관한 전설 /35

행가좌월 /41

수탉이 소식을 전하는 “타삼조” /41

단합연의 래력 /43

바가지우물에 관한 전설 /45

제5장 똥족의 가무예술

똥가(侗歌)의 래력 /47

“사야”가 노래를 메고 땡향에 전하다 /49
갈대생황에 관한 전설 /53

제6장 땡족의 옷차림

땡족여성들이 머리를 기울게 쪽찌는 유래 /57

제7장 땡족의 명절

설에 수탉에게 계관과를 드리다 /59
햇곡식축제의 유래 /61
오반절에 관한 유래 /63
림왕에 관한 이야기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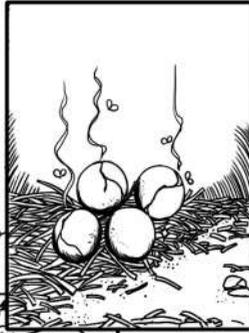
제8장 땡족의 운동경기

화포빼앗기에 관한 전설 /67
“투우”를 즐기게 된 전설 (1) /69
“투우”를 즐기게 된 전설 (2) /71

제9장 땡족의 전통미덕

아룽과 아호에 관한 이야기 /73

참고문헌



제1장 산을 등지고 물을 끼고 사는 유구한 민족——똥족

우리 나라 서남지역에는 똥족이라는 유구한 소수민족이 있다. 똥족은 “갱(更)”이라고 자칭하는데 “산골짜기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고월인(古越人)의 후예로서 비록 본 민족의 문자는 없지만 언어가 있었기에 입과 귀로 전해내려온 이야기와 전설을 통하여 그들만의 특유한 민족문화를 많이 보전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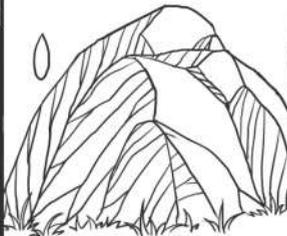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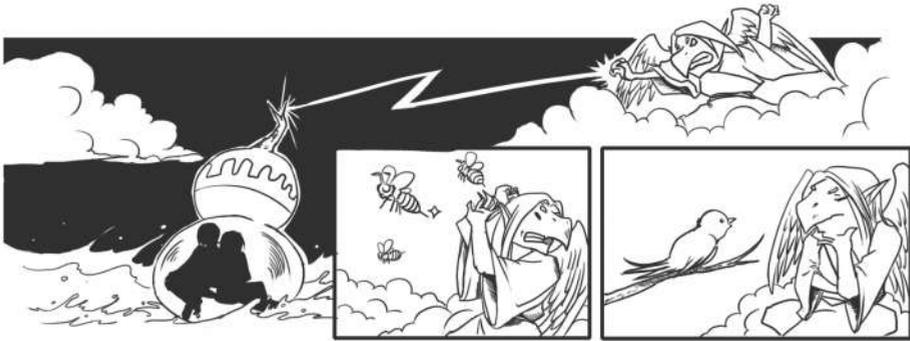
똥족은 주로 귀주, 호남과 광서 등 3성(구)에 분포되어있다.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똥족의 인구는 약 296만명으로서 귀주성에 가장 많았다. 3성(구)의 련접지대에 똥족어로 “량몽(梁蒙)”이라고 부르는 “운무산(云雾山)”이 있는데 이 산은 3성(구)을 련결하고있기에 “3성과(三省坡)”라고도 불리운다. 이곳은 똥족의 주요한 집거구이다.

똥족의 신화중에서 인류의 최초의 선조는 “귀과(龟婆)”가 알을 까서 생겨난 송은(松恩)과 송상(松桑)이라고 한다.

똥족은 어디서 왔는가?

옛날옛적에 네 귀과가 산밑에다 알을 네개 낳았는데 그중 오직 한개만이 온전하였다. 그 온전한 알이 남자애로 부화되었는데 바로 송은이었다. 귀과 넷은 또 산밑에다 알을 네개 낳았는데 역시 한개만이 온전하였다. 그 온전한 알이 여자애로 부화되었는데 바로 송상이었다. 둘은 커서 부부로 되어 자식 열둘을 낳았는데 그들은 호랑이, 곰, 뱀, 룡, 퇴과(雷婆), 고양이, 개, 오리, 돼지, 거위와 장량(章良), 장매(章妹)이다.

그들중에서 오직 장량과 장매 오누이만이 사람이었다. 그들은 짐승형제들과 살기가 싫어서 한가지 피를 생각해내여 형제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무예를 겨루자고 하였다. 형제자매들이 산기슭에 다 모이자 두 사람은 산에다 불을 질렀다. 산기슭은 삼시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형제자매들은 뿔뿔이 도망쳤는데 맹호는 심산속으로, 룡은 강물속으로, 뱀은 땅굴속으로... 들어갔고 퇴과는 하늘로 올라갔다. 퇴과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원썩을 갚으리라 맹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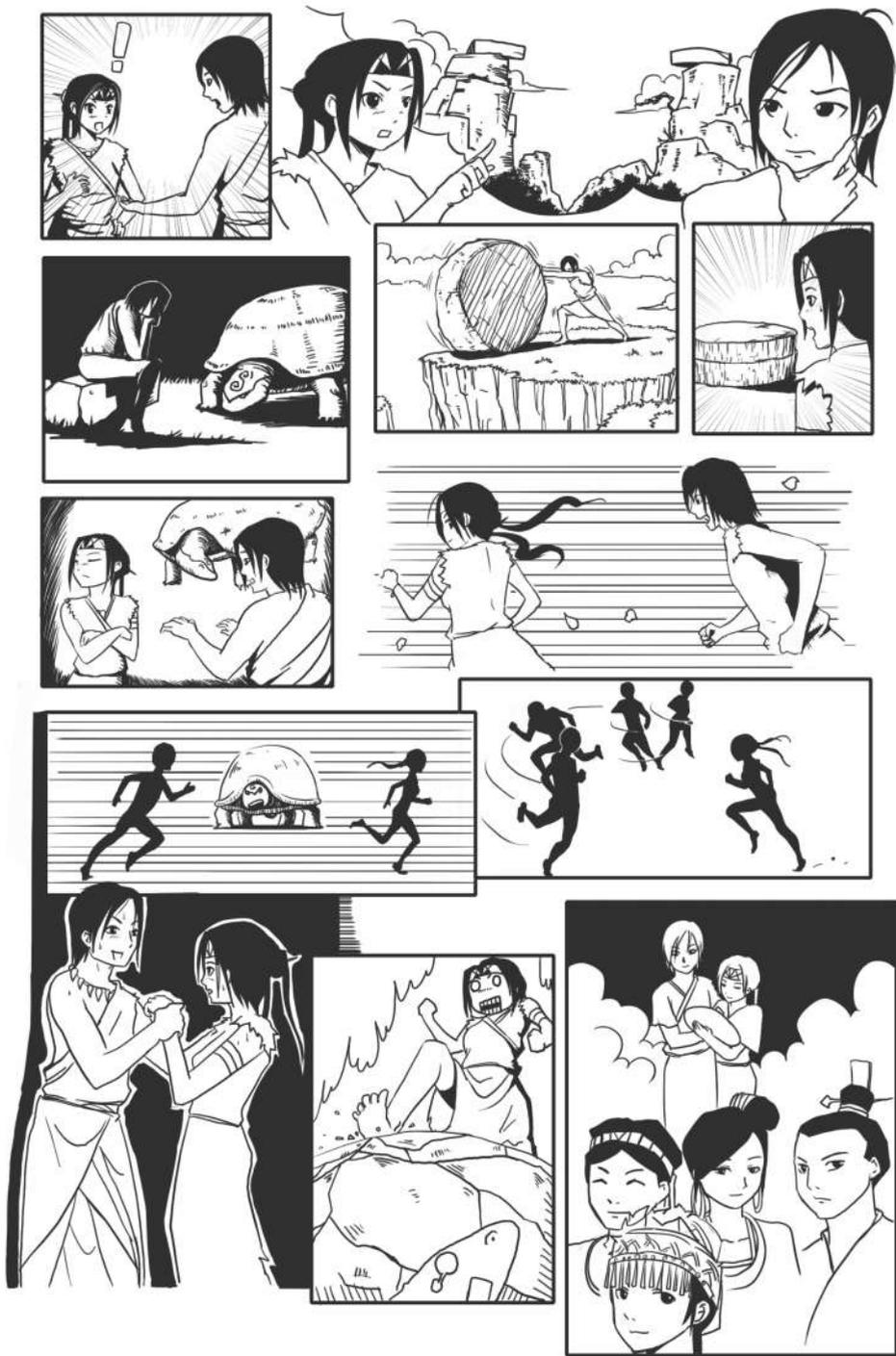
하루는 퇴파가 하늘에서 홍수를 지게 하여 온 대지를 침몰시켰다. 장량과 장매는 조롱박안에 들어가 피해서야 겨우 살아남았다. 퇴파를 정복하기 위하여 오누이는 꿀벌을 파견하여 쏘아주게 하고 또 화미조(画眉鸟)를 파견하여 담판을 거쳐 끝내 퇴파가 태양을 내보내어 홍수를 말리우도록 설복하였다. 홍수가 지나간후 하늘에는 일곱개의 태양이 떠서 대지를 뜨겁게 쬐여주었다. 장량은 또 라영(螺贏)을 시켜 필요없는 태양들을 없애치우게 하여 인간세상의 평안을 되찾았다.

홍수가 지나가니 대지는 황량하기 그지없었고 어디가도 사람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오누이는 새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다. 하지만 눈을 편히 뜨고 인류가 멸망하는것을 보고만있을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오누이는 각기 자기의 짝을 찾아 결혼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삼년 륝개월이나 찾아다녔으나 사람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였다.

할수없이 그들은 대나무를 찾아가서 물었다. “대나무야, 세상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알려줘. 우린 결혼을 해야 한단말이야.” 대나무가 말하였다. “홍수가 세상을 휩쓸어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너희들끼리만 배필을 무을수 있을것이야.” 이 말에 너동생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낫을 휘둘러 그 대나무를 찍어버렸다. 대나무는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찍히우어나니 억울해서 “짝을 찾지 못하거들랑 나를 원래대로 이어놓아줘.”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소나무한테 가서 물었다. “소나무야, 너는 높은 산등성이에 서있으니 멀리 내다볼수 있을테지? 알려줘, 이 세상 어디에 가면 사람이 있니?” “홍수가 세상을 휩쓸어가서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단다. 혼인을 하려거든 너희 오누이끼리 할수밖에.” 이 말에 장매는 또 화가 나서 “허튼소리를 하면 너희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장량이 “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라고 하니 장매는 얼른 말을 바꾸어 “이쪽에서 날아가 저쪽에서 살아날수는 있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후날 소나무는 찍힌 다음에 새로운 가지가 돋어나지 않고 종자에 의해서만 다른 곳에서 싹틀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또 바위한테 물었다. “바위할아버지, 세상 어디에 사람이 또 있나요? 저희들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바위가 말했다. “홍수가 지나간후에 사람이라고는 남은게 없단다. 혼인을 하려거든 너희들끼리 할수밖에 없지.” 이 말에 장매는 또 화가 났다. 세상 어디에 오누이끼리 혼인하는 도리가 있단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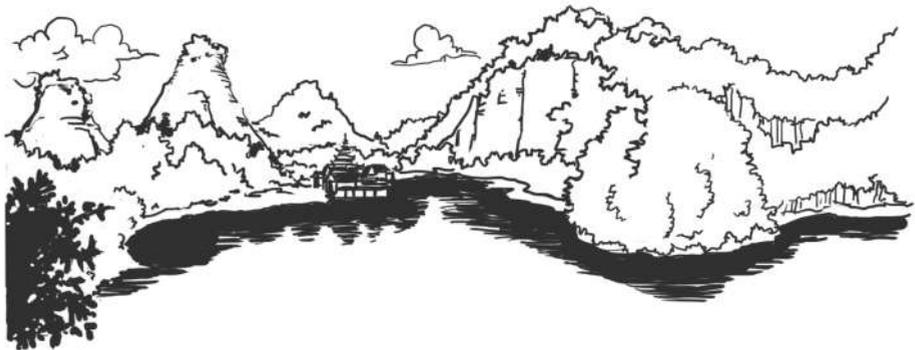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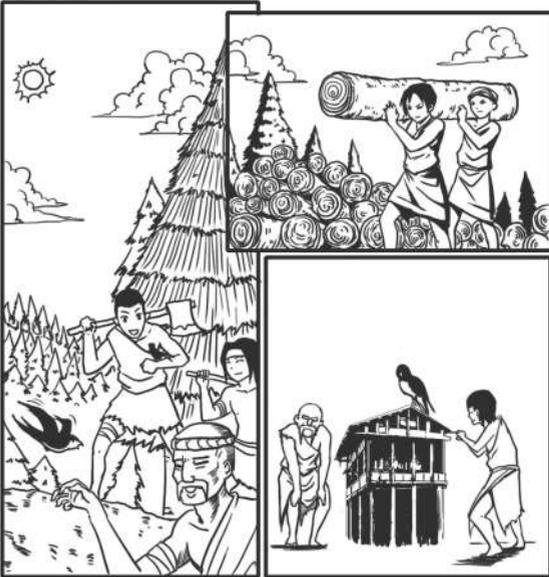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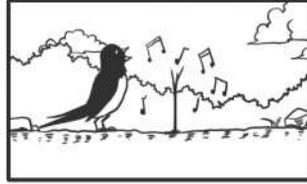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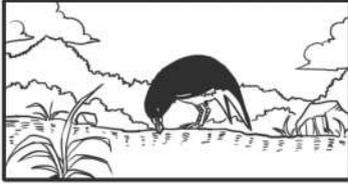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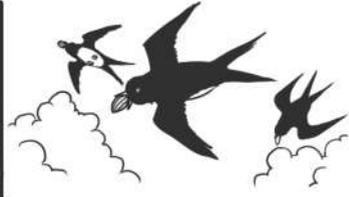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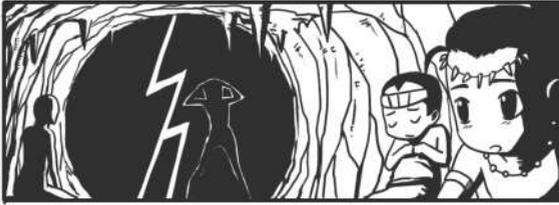


후손들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장량은 할수없이 장매에게 혼인을 하자고 하였다. 장매도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이런 일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장량에게 동산과 서산의 꼭대기에 두쌍의 매들이 있는데 산밑으로 굴러 내려와서 한데 모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장량은 이 말을 듣고 아주 난처하여 가는곳마다 그 방법을 물었다. 하루는 거부기에게 물었다. “동산과 서산에 두쌍의 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굴러내려와서 한데 모일수 있을까요?” 거부기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자넨 참 고지식하구만. 자네가 미리 산밑에다 두쌍의 매들을 한데 모아놓고 다시 산우에 올라가서 매들을 굴리되 어디로 굴러가는 상관 말고 다만 자네가 한데 모아놓은 매들이 있는데로 그녀를 데리고 가면 될게 아닌가.” 장량은 그대로 하였다.

장매는 한데 모여있는 매들을 보고 그것들이 산우에서 굴러내려온것이라는것을 믿지 않았다. 장매가 거듭 물어보자 장량은 거부기가 알려준 방법이였다고 실토하였다. 장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것은 제쳐놓고 이번에는 우리 둘이 이 산등성이 주위를 따라 돌면서 뛰어요. 제가 앞에 서고 오빠는 뒤에 서서 뛰다가 세바퀴를 돈 다음 만약 오빠와 마주치고 저를 잡으면 혼인을 할거예요.” 장량은 할수없이 그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이 산등성이를 돌면서 두바퀴나 뛰었으나 장량은 아직도 장매의 뒤에서 뛰고있었다. 거부기가 길옆에서 보고있다가 다급히 소리쳤다. “돌아서서 뛰게, 돌아서서 뛰라니까!” 장량이 문득 깨닫고 돌아서서 뛰었다. 얼마 안가서 장량은 장매와 마주치고 그녀를 붙잡았다. 이렇게 되자 장매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그후에 장매는 이번에도 역시 거부기의 꾀였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장량이 없는 틈을 타서 거부기의 등껍데기를 발로 여러번 힘껏 밟아 깨뜨렸다. 장량은 자기의 침을 발라 거부기의 등껍데기를 다시 붙여주었다. 하여 거부기의 등껍데기에는 오늘날 까지도 그때 갈라터졌던 무늬가 있다고 한다.

장량과 장매가 혼인을 한후, 그들의 후손들은 뚱, 한(漢), 묘(苗), 요(瑶) 등 여러 민족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선조이고 한집 식구이기에서로 사이좋게 함께 살았다고 한다.



마을은 뚱족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자 또 뚱족문화의 요람이기도 하다. 뚱족 마을은 일반적으로 산을 등지고 강을 낀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기에 한 마을에 적어서 수십호, 많아서 수백호에서 천호까지 달한다.

뚱족마을은 구조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마을어구에는 마을대문이 있다. 뚱족의 가옥은 “간란식(干栏式)” 나무층집(木樓)으로서 2층짜리와 3층짜리가 있는데 청산록수사이에 어울려있어 아주 돋보인다. 3층짜리 가옥의 밑층에는 가축과 가금을 기르고 2층에는 사람이 살며 3층에는 곡식과 잡동사니들을 건사한다. 사람들이 층집위에 살면 습기를 막고 뱀과 같은 파충을 피할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집집마다 독립적인 나무층집을 짓는데 또 여러 집이 이어져 복도가 서로 통하는것도 있다. 그러므로 “마을을 다 돌아도 아래층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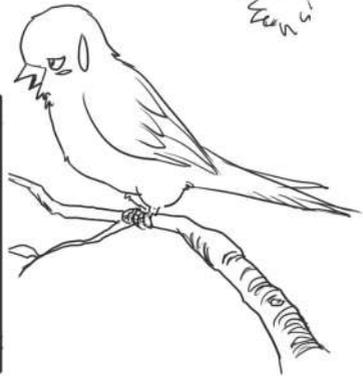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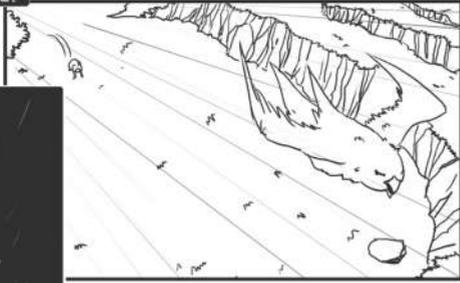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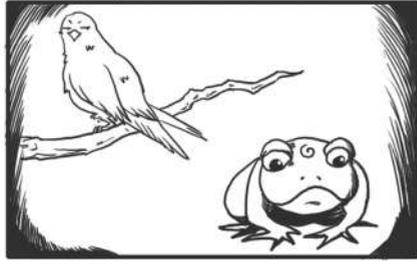
전하는데 의하면 이런 나무층집을 짓게 된것은 제비의 공로라고 한다.

나무층집에 관한 전설

옛날에 뚱족사람들은 바위굴이나 수풀이 우거진 산밑에서 풍찬로숙의 생활을 하였다. 사람들은 안정한 생활을 바랐는데 이것을 마음씨 고운 제비가 알게 되었다. 제비들은 머나먼 곤륜산까지 여러차례 날아가 삼나무(杉樹)종자를 물어다가 산비탈에 심었다. 얼마후에 나무종자가 싹이 트니 제비들은 기뻐서 매일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주고 보살폈다. 삼나무가 커서 숲을 이루자 제비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무를 찍게 하였다.

사람들은 제비를 따라 산비탈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잘 쌓아두었다. 그들은 이 재목들로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몰랐다. 그러자 제비는 망동초(芒冬草)가지들을 물어다가 나무층집모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집짓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 모양을 따서 나무층집을 짓고 편안히 살면서 즐겁게 일할수 있게 되었다.

뚱족마을은 사람들에게 단결되고 향상하며 화목하고 정연한 느낌을 준다. 마을의 내부에는 자신의 관리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언변이 좋고 처사가 공정한 사람을 채로(寨老)로 선거하여 관리하였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채로제도는 이미 력사로 되었지만 마을의 로인단체는 마을의 공익적인 사업중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고있다.



제2장 뚱족의 생계 방식

뚱족은 주로 벼농사를 짓는다. 산이 많은 탓에 그들은 물과 땅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 지금도 오래된 물방아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논밭을 관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뚱족의 물방아는 귀주 종강(从江)현 락향(洛香)의 “물방아할아버지”가 발명한 것이라고 한다. 그분에게 감사드리기 위하여 8월이 되면 사람들은 락향에 모여 와 노래하고 춤추며 경축한다고 한다.

개구리와 제비가 벼종자를 구해오다

옛날에 뚱족에게는 벼종자가 없었다. 어느날 제비와 개구리가 남해바다가에 벼종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가서 구해오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제비는 개구리를 깔보면서 날수 있는 자기가 가야 한다고 했고 개구리는 자기는 다리가 네개나 있고 또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가 가야 한다고 우겼다.

결국 그들은 함께 가게 되었다. 첫 이틀동안은 날씨가 청명하여 제비가 하늘 높이 훨훨 날아 개구리를 멀리 떨어놓곤 하였다. 제비가 개구리에게 “래일은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석달동안 기여도 나는 너를 따라잡을수 있을거야. 그것이 차라리 자꾸 너를 기다리는것보다 더 낫겠다. 정말 귀찮아 죽겠어!”라고 말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리자 제비는 마음놓고 잠을 잤지만 개구리는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났다. 토란밭을 지나다가 그는 토란잎을 하나 따서 강물에 띄워놓고 그우에 훌쩍 올라탔다. 토란잎이 급물살을 타고 나는듯이 떠내려가니 그는 하루만에 남해에 도착하여 벼종자를 구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강아지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거마리의 도움을 받아 깊은 못에 떨어뜨렸던 벼종자를 건져내기도 하였다.

개구리가 한달전에 제비와 갈라졌던 곳에 돌아와보니 제비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제비는 막 개구리를 비웃으려다가 개구리 손에 들려있는 벼종자를 보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는 개구리를 탄복하였다.